

경주 서부동 19번지 출토 관사명분청사기 연구

沈志妍

Shim Jiyeon
(財)新羅文化遺産調査團 研究員

I. 머리말

분청사기에 대한 연구는 편년과 양식적 특징, 분원 설립과 백자생산에 따른 분청사기의 쇠퇴와 소멸과정, 분청사기요지에서 백자 전업생산 요지로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최근에는 지방 가마의 지역적 양식과 특징¹⁾ 그리고 특정기명(제기)²⁾ 등에 대한 연구 및 고려 말 강진자기소의 해제를 계기로 분청사기의 제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검토한 연구³⁾ 등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관사명이 시문된 분청사기는 조선전기 공납물의 수급관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편년기준이 되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제작지가 새겨진 공납자기는 조선전기 공납품⁴⁾

- 1) 鄭澄元, 1968, 『慶南地域 陶磁器의 研究』-陶窯址 및 그 出土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李愛玲, 1993, 『印花技法 粉靑沙器의 變遷研究』-忠淸南道 公州郡 燕岐郡의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全勝昌, 1996, 『15世紀 磁器所 考察(Ⅰ)』-慶尙北道 尙州地域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湖巖美術館研究論文集』1號, 湖巖美術館, pp.86~102.
姜敬淑, 1994,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陶器所 研究』-忠淸道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202, 한국미술사학회.
姜敬淑, 1997, 『『世宗實錄』 『地理志』 기록에 있는 磁器所 陶片의 특징』-경기도와 충청도의 5곳 가마터를 중심으로-, 『考古美術史論』5,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2) 정소라, 1999, 『朝鮮前期 吉禮用 粉靑祭器 研究』-忠孝洞窯址 出土遺物을 중심으로-, 『美術史研究』223, 韓國美術史學會, pp.5~30.
- 3) 박경자, 2002, 『14世紀 康津 磁器所의 해체와 窯業 체제의 二元化』, 충북대학교 대학원 문학 석사학위논문.
- 4)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貢納이란 중앙정부와 宮中の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에 부과하여 물품을 상납하게 한 租稅制度의 하나이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고려시대 이후에는 농산물·수산물·광산물

의 한 부분으로 문헌기록과 비교하여 조선시대 수공업 제품의 공급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물자료이다. 서부동 19번지 유적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慶州(府)長興庫』銘 외에 새로운 관사명인 『(慶州)公須』銘이 확인되었다. 이 명문은 조선시대 지방재정과 관련 있는 자료로 추정되므로 그 제작 배경과 사용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다. 본 글에서는 조선시대 전기의 관사명분청사기가 다양하게 출토된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⁵⁾ 출토유물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시기를 구분하고 경상도지역에서 출토된 관사명 분청사기들의 사례와 비교하여 공급자간의 공급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II. 경주부와 서부동 19번지 유적

1. 조선전기의 경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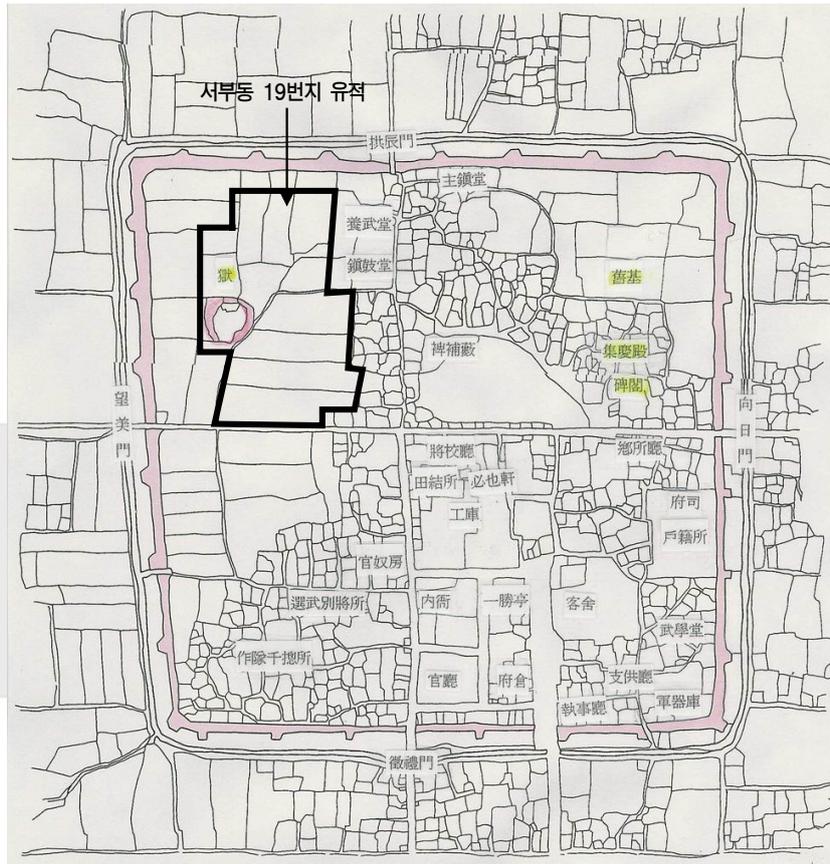
조선조의 통치이념은 유교로서 『經國大典』 등의 법전과 『國朝五禮儀』 등의 禮典이 그 시행의 근간이 되었다. 건국초기에는 역성혁명을 정당화하고 왕권의 확립 및 사회질서 유지, 유교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예법이 강조되었으며 국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태조의 眞殿(태조의 초상화를 모신 전각)이 경주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 건립되었다.

조선시대 전기의 경주부는 경상도 동부지역을 관리하던 지역행정의 중심 지였으므로 현 시가지의 중심부에는 方形的 邑城이 위치하고 있고, 읍성 내부에는 많은 관아건물이 있었다. 읍성내부의 동남쪽에는 府衙·內衙·一勝亭·府倉·將校廳·田結所·必也軒·工庫·客舍·執事廳·支供廳·鄉所廳·府司·

등 각종 토산물을 常貢과 別貢으로 구분하여 郡縣을 단위로 하여, 그 종류와 액수를 부과하였고, 각 郡縣에서는 다시 이것을 납자 장정수를 기준으로 하여 백성에게 분담시켰다. 常貢은 지방의 생산물 가운데 품목과 수량을 정해놓고 해마다 그대로 상납하도록 하는 것이고, 別貢은 임시적인 특별과세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특산물을 지정해서 필요할 때 마다 내게 하였다. 조선왕조가 들어선 후 太祖元年(1392)에는 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여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정하고, 납자 장정수를 기준으로 하던 고려시대와는 달리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였다. 공납제가 일단 정비된 성종대에는 공물은 각 官司의 수요에 최소한으로 따르는 元定貢物(元貢)과, 田稅의 일부로서 명주·무명·기름·꿀 등을 거두는 田稅條貢物(田貢)로 이루어져 進上 및 다른 雜賦와는 구별되었다. 이외에도 수시로 부과하는 別卜定貢物도 있다.

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西部洞 19番地 遺蹟』

戶籍所·武學堂·軍器庫 등이 있었고 남서쪽에는 官奴房·選武別裝所·作隊千
 總所가 남동쪽에는 養武堂·鎮鼓堂·獄이 북동쪽에는 主鎮堂과 集慶殿·碑閣
 등이 위치하였다⁶⁾.(지도1)



지도1. 경주읍성내 관아위치도(1912년 지적도로 필자작성)

서부동 19번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의 도로유구와 생
 활유적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우물 등이 확인되었으며 조선시대의 獄舍址와
 폐기장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도 조사되었다. 서부동 주변지역에서 조선시대
 관아와 관련된 건물지는 북부동 80-1번지(推定 鑄錢址)⁷⁾, 동부동 159-1번지(推

6) 慶州文化院, 1990, 『國譯 東京通志』 pp.260~262.

金泰中, 1992, 『慶州邑城』, 『慶州史學』 第11輯, 慶州史學會, p.156.

7) 慶州古蹟發掘調查團, 1986, 『推定 鑄錢址 試掘調査』

定一勝亭址)⁸⁾, 북문로 유적⁹⁾ 등이 있다. 이 유적들은 서부동 19번지 유적과 연관성이 있는 관청 관련시설로 판단되며 출토유물에 있어서도 서부동 19번지 유적과 상호 관련성이 확인된다¹⁰⁾.

경주부내 여러 관청들 중 본 유적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경전과 객사의 변화 과정은 『朝鮮王朝實錄』의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1>

<표-1> 집경전과 객사의 시기적 변화

번호	연대	내용
1	太祖 7년(1398)	임금의 진영을 계림부 御容殿에 봉안함.
2	太宗 12년(1412)	御容殿을 『太祖眞殿』으로 고쳐부르게 함.
3	太宗 13년(1413)	鷄林府를 慶州府로 改稱함.
4	太宗 14년(1414)	『太祖眞殿』에서 四孟朔 大享과 有名日 別祭를 使臣과 守令의 주관 아래에서 행함.
5	太宗 15년(1415)	『太祖眞殿』에서 四時大享은 폐지토록 함.
6	世宗 24년(1442)	太祖眞殿을 『集慶殿』으로 하고, 殿直 2人を 둠
7	世宗 25년(1443)	太祖辟容을 『集慶殿』에 봉안함.
8	世宗 29년(1447)	集慶殿의 제탁에 올릴 제품의 위치를 정함.
9	世祖 8년(1462)	『集慶殿』의 祭司의 중 8人を 양민 20人으로 정하여 번을 쉬게 하고 수직케 함.
10	睿宗 1년(1469)	『集慶殿』에 누각이 없어 제향을 지내는 시각을 알지 못하자, 漏刻과 日影을 내려보내 사용하게 함.
11	成宗 25년(1494)	『集慶殿』 典祀廳에 불이 나 祭器와 祭服이 모두 불에 타자, 대신을 보내어 致祭를 올리려고 했으나 대신의 반대로 時服과 沙器로 제사를 지내게 함.
12	中宗 11년(1516)	金末分을 보내어 眞殿에 奉審케 함
13	明宗 7년(1552)	慶州官舍가 불에 탐.
14	明宗 8년(1553)	도승지를 보내어 『集慶殿』에서 慰安祭를 올리게 함
15	宣祖 23년(1590)	客舍의 西軒에서 大廳 東軒까지 불에 탐.
16	正祖 22년(1798)	불타버린 『集慶殿』의 옛터에 비각을 세우고 비석에 『集慶殿舊基』라고 글자를 새김.

서부동 출토 관사명 분청사기들 중에는 일상용기 외에 제기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명들은 집경전과 객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집경전과 객사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다.

8)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慶州市 東部洞 159-1番地 建物址 發掘調査報告書』
 9) 韓國文化財保護財團·慶州市, 2003,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
 10) 동부동 159-1번지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수막새와 동일한 막새가 서부동 19번지에서도 출토되어 두 유적간에 상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조선전기 경주부내의 각 관청들은 공납자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을 것이다. 여러 관청 중 서부동 19번지 유적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던 집경전과 객사는 제사와 손님 접대라는 업무의 특성으로 보아 일상용기 이외에 제기 등도 공급받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표-1>의 4~11).

집경전은 태조의 曄容을 봉안한 殿字로 경주에 있는 太祖眞殿의 명칭이다. 태조진전은 조선초부터 서울을 비롯해 태조와 인연이 있거나 삼국시대 이전부터 고려시대까지 수도였던 외방 5곳(慶州 集慶殿, 全州 慶基殿, 平壤 永崇殿, 開城 穆淸殿, 永興 濬源殿)에 세우고 수용을 봉안하였다. 태조 7년(1398) 태조의 진영을 계림부에 봉안한 이래 曄容殿 혹은 태조진전, 집경전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성종 25년(1494) 집경전의 전사청에 불이 날 때까지 경주부에 봉안되었다. 임진왜란때 태조의 진영을 강릉부에 옮겨 봉안한 후 집경전은 불타버렸고 이후 재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집경전은 임술년(1442년, 세종24)이래 태조 이성계의 曄容을 봉안하고 있었으며 수령이 새로 부임하면 이곳에 들러 배례하는 것이 첫 순서였다. 중앙에서 관원이 내려와도 반드시 집경전에 먼저 배례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 당시 집경전은 경주에서 가장 절대적인 성역이며 일반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도승지 權輒이 경상도 감사 丁應斗를 대동하고 이곳에서 위안제를 올렸던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集慶殿의 위치는 『世宗實錄地理志』에는 경주부 성내 동쪽 모서리,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객관 북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60년대 초까지 경주시 북부동에 비각 등의 건물 일부가 남아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없어졌으며 현재 위치는 서부동 19번지유적의 동편으로 경주여자중학교와 계림초등학교 주변지역이다¹¹⁾(사진1).



사진1. 慶州 集慶殿舊基 碑閣(1922년)

11) 慶州大學校·慶州文化研究所, 1999, 『朝鮮王朝實錄 慶州關聯編記事資料集』, p.387, 각주28)재인용.

관사명분청사기에 지명(『慶州』)이 확인되는 점과 鷄林府에서 慶州府로 개칭된 태종 13년(1413) 이후에 폐기장으로 사용되었으리라고 보아 수혈과 우물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의 상한연대는 1413년으로 설정하겠다. 그리고 하한연대는 집경전의 전사청에 불이나 제기와 제복이 모두 불에 탄 성종 25년(1494)으로 설정하고자 한다(〈표-1〉의 3과 〈표-1〉의 11 참조).

2. 『公須』銘 분청사기



사진3. 『公須』銘분청사기
(경주 서부동 19번지 출토유물)

서부동 19번지 유적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관사명 이외에 『(慶州)公須』銘이 시문된 관사명분청사기가 8점 출토되었다.

『公須』銘이 시문된 분청사기는 현재까지 경주지역에만 확인되고 있으며 서부동 19번지 유적(사진3)과 동천동 7B/L유적(사진5)에서 출토되었다.



사진4. 『公須』銘청자상감류노수금문접시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사진5. 경주 동천동 7B/L 출토유물
(경주대학교박물관 소장)

『公須』銘 분청사기는 지방 관청(驛)의 재정을 위해 지급된 公須田의 소출로 제작된 기명이다. 14세기말에서 15세기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청

자에서 『公須』銘이 확인되며 그 예로 해강도자미술관 소장품인 『公須』銘 靑
 瓷象嵌柳蘆水禽文標匙를 들 수 있다. 이것은 干支銘부터 시작되는 銘文 전통이
 고려 후기 관사명을 거쳐 조선시대의 분청사기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¹⁶⁾(사진4).

<사료1> 『朝鮮王朝實錄』卷28, 世宗 7年 6月 辛酉條(1425年)

의정부에서 각 품의 관원이 진언한 것을 가려 뽑아서 아뢰니 아래와 같았
 다. … 형조참판 이숙묘의 진언은 1. 각 고을이 사과의 전량은 비록 아록
 이나 둔전의 소출로,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바꾼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민력으로 모인 것이니, 실상은 사사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함부로
 지나치게 써버린다면,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평
 상시에 사신과 손님들을 접대하고 요구에 수응하며, 공물을 보충하고 관
 사를 수리하고 포진과 기명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수령이 임의로 쓰게
 되었으니, 회계에 기재된 일이 있는 국고의 전량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
 다. (“議政府六曹採擇各品陳言以啓 … 刑曹參判李叔畝陳言 一 各官私庫錢
 糧 雖循祿屯田之所出 以有易無之物 皆民力所聚 實非私也 汎濫費用 罪在
 無赦 然常時使客支應 貢物補添 館舍修理 鋪陳器皿造作 守令隨意用之 比
 會計所載國庫錢糧有間矣 ….”)

<사료1>은 지방재정의 지출내용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공수전은 驛田으로 고려시대에는 公須田, 紙田, 長田, 館田의 형태로, 조선
 시대에는 公須田, 官屯田, 口分田, 馬位田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둔전을 제외한 역
 전은 모두 民田위에 설정된 수세지인 동시에 원칙적으로 역 소속 有役人들의
 所耕田이었다. 따라서 공수전은 各自收稅地로서 민전위에 설정된 토지이며 그
 성격은 稅를 부담하는 토지로 국가에 바치는 대신, 역에 소속한 국역부담자에게
 바치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민전에서의 수조권을 이
 양한 것이다. 초기의 공수전은 역리나 전운·조역노비의 경작노동에 의하여 경
 영되었으나 점차 小作制의 추세에 따라 민전수세지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역의 재정은 충당되었다.¹⁷⁾

세종 26년(1444) 11월에는 貢法이 확정되면서 田分六等과 年分九等에 의해

16) 韓盛旭, 2001, 『高麗 後期 靑瓷의 性格-器形과 胎土 分析을 中心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p.43, p.114, 사진54 재인용.

17) 趙炳魯 2002, 『韓國驛制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pp.467~473.

1결당 20-4두씩 부과되었다. 하지만 아록전과 공수전은 『經國大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해당 지방관과 지방 관청이 직접 田稅를 수취하였다.¹⁸⁾ 공수전은 전세를 모두 해당 지방관청에서 거두었으며 아록전의 경우는 수령이 家屬들을 데리고 부임할 경우에는 전액을 현지에서 수취하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는 가족이 있는 서울에서 가숙들에게 지급하되 그 액수만큼 현지의 州倉이라고 불리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아록·공수전세는 지방관과 지방 관청의 공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지출되었으며 지방관이 독자적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私庫에 따로 보관된 아록·공수전세의 출납운영을 지방관이 자의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지출규정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했다.¹⁹⁾

지방재정의 기본재원이었던 아록전과 공수전은 민전 위에 설정된 수세지로 해당지방에서 직접 수취하였으며 중앙정부의 회계와는 구별되었다. 그리고 국가재정의 주요한 재원이었던 軍資田稅 등과는 구별되어 국고가 아닌 지방관청의 私庫라고 불리는 창고에 보관되었다²⁰⁾. 아록·공수전세는 수령의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여러 용도로 지출되었는데 수령의 가숙들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이나 지방을 왕래하는 使客의 支應 비용, 그리고 수령이 거느린 伴徭·軍官·從人 등과 말(馬)의 糧料로 가장 많이 지출되었다. 그리고 중앙으로 상납하여야 할 공물이 부족할 경우에 보충하기도 하였으며 官廩의 수리나 什物·器皿 등의 제작비용으로 지출되기도 하였다.²¹⁾ 그 밖에 外方 各官의 釋尊 祭物과 教授·訓導들의 廩俸도 私庫의 錢糧으로 지출하였다.²²⁾

위의 내용과 같은 지출은 모두 법전에 기재되어 있었던 공식적인 용도였다.

앞에서 언급한 집경전과 객사는 선왕에 대한 숭봉의식과 망궐례가 행해지던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이 두 곳이 임금의 권위와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18) 李章雨, 1998, 『朝鮮初期 田稅制度和 國家財政』, 一潮閣, p.90. 각주52)재인용.
 “寺田衙祿田公須田渡田崇義田水夫田長田副長田急走田則各自收稅”(『經國大典』 2, 戶典諸田),
 “各自收稅 皆民田地 民田而稅不納於官 使應食之人 各自收之也”(『經國大典註解』 全集, 戶典諸田註)
 19) 李章雨, 1998, 『朝鮮初期 田稅制度和 國家財政』, 一潮閣, 각주56)재인용, p.90.
 이 점에 대해서는 『太宗實錄』 14, 태종 7년 10월 戊子; 『睿宗實錄』 6, 예종元年 6월 辛巳; 『成宗實錄』 174, 成宗 16년 正月 戊申의 기록도 참조된다.
 20) 위의 책, 각주55)재인용, p.90.
 國庫와 구별되는 私庫의 존재는 『世宗實錄』 22, 세종 5년 10월 丙寅 및 『經國大典』 2, 戶典解由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私庫는 廩庫로 불리기도 하였다(『太宗實錄』 12, 太宗 6년 閏7월 癸亥참조).
 21) 위의 책, 각주61)재인용, p.92.
 22) 위의 책, 각주62)재인용, p.90, 『成宗實錄』 卷172, 성종 15년 11월 己酉 참조.

공간으로 인식된 중요한 장소였다. 따라서 이곳에서 행해진 의례의식들은 국가 차원의 吉禮²³⁾였고 이러한 의례와 사신접대에는 제기들 외에도 다양한 일상용기를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명들은 경주부 관내에서 생산되어 경주부로 공납된 후, 각 관사에서 필요로 하는 양은 重記²⁴⁾에 의거하여 공급받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⁵⁾

重記는 서울 및 지방의 관사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錢, 穀, 布, 軍器, 保人數, 奴隸, 기타 雜物을 일정 기간마다 그 變動 및 現存의 狀況을 置簿하여 책임자 및 관계자의 手決을 거치는 會計文書이며 각 官司에 항상 비치해두는 會計帳簿로 祿俸의 지급, 減俸, 관리의 성적평정, 解由成出(회계책임면제증명서발급)의 근거 자료이다.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 錢穀의 減耗방지를 위해 監察 및 請臺의 필요성과 중기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錢穀 등의 물건 외에도 貢物, 奴隸, 經費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중기문서의 書名을 통해 종류(捧上-수납, 上下-지출, 會計-잔액)와 중기문서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는 官司(宮, 倉, 監營, 兵營, 水營, 郡, 縣 등)를 알 수 있다.²⁶⁾

<자료2> 『成宗實錄』 卷10, 성종 2年 3月 25日 丁酉條(1471年)

諸司官吏가 그 所管에서 支用한 물건을 즉시 重記에 올리지 아니하고, 걸치레만 한 회계의 수는 심히 未便하니, 금후로는 頒祿 할 때, 중기에 올린 것의 勤慢을 상고하여, 중기에 올리기를 畢한 자만 給祿하고, 그 중에서 게으름이 더욱 심한 자는 啓聞하여 罷黜하며, 月令의 근만을 감찰하는 것도 또한 本府로 하여금 檢劾하게 하소서. (“諸司官吏其 所管支用之物 未卽上重記虛張會計之數甚未便 今後頒祿時 考上重記勤慢 畢上重記者給祿 其中勤慢甚者啓聞罷黜 月令監察勤慢 亦今本府檢劾”)

중기기록에 포함되는 내용 중 물품의 수량과 변동 상황을 都合하여 기록한다는 것으로 보아 경주부내에서 생산된 공납자기(관사명분청사기)의 수납과 지출관계도 重記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의 일종인 공납자기의 생산, 소비, 폐기과정들도 국가에서 통제하였으리라 생각되며 <자료2>로 보아

23) 吉禮는 大祀, 中祀, 小祀와 같은 祭祀행위에 관한 儀禮이다.

24) 重記는 지방 관청에서 출납되는 물품을 관리하는 회계장부이다.

李章雨, 1998, 『朝鮮初期 田稅制度와 國家財政』, 一潮閣. p.131.

25)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물로 박원택, 1987, 『朝鮮朝의 官廳會計-重記와 解由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학위논문이 있다.

26) 박원택, 1987, 『朝鮮朝의 官廳會計-重記와 解由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학위논문, pp.8~14.

증기문서의 내용에도 그 과정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重記에 대한 문헌기록상의 언급은 『太宗實錄』卷33, 太宗 17年 5月 4日 己未條(1417)에 처음 등장하고 있으며 조선전기부터 각 관청에서는 회계장부인 重記에 의해 물품들(貢納品磁器)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졌다고 추정된다. 이는 1417년에 관사명을 새기게 한 것²⁷⁾, 1421년에 장인의 이름을 새기게 하는 일련의 조치²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공납된 자기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과정들이 重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고 생각된다.

『公須』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공납자기를 제작하는 비용에 있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분리되어 제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공납자기의 제작형태는 貢案²⁹⁾에 의해 각 도에서 징수되어 왕실이나 중앙으로 공급(중앙재정)되는 형태와 『公須』銘과 같이 지방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한 형태(지방재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3. 서부동 19번지 출토유물 시기구분

서부동 19번지유적의 조선시대 수혈유구와 우물에서는 「慶州長興庫」, 「慶州府長興庫」, 「慶州公須」, 「公須」, 「司膳」, 「營」, 「上」, 「彦仁」, 「密陽長興庫」銘 등 모두 107점의 각종 명문이 시문된 분청사기와 제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13호 수혈에서 32점(29.91%), 21호 수혈에서 5점(4.67%), 우물에서 7점(6.54%) 등의 관사명분청사기가 확인되었다.³⁰⁾

27) 『太宗實錄』卷33, 太宗 17年 4月 丙子 20日條(1417年)

“戶曹,上器皿除幣事宜,啓曰據長興庫呈,外貢砂木器,以司饗房納施行而庫,專掌捧納,內宴及幸行時,分納於司饗房·司膳署·司饗所,故未得終始考察,或匿或破還納之數僅至五分之一微於逢受下典實爲積年巨幣,願自今庫納沙木器外貢元數內,司饗房·司膳署·禮賓·典祀·內資·內瞻寺·恭安·敬承府等各司,分定上納,各其司,考察出納,以革積幣,戶曹又啓,長興庫貢案付沙木器,今後刻長興庫三字,其他各司所納,亦依長興庫例,各司刻號,造作上納,上項有標器皿,私藏現露者,以盜官物坐罪,以絕巨幣,皆從之”

28) 『世宗實錄』卷11, 世宗 3年 4月 戊申 2日條(1421年)

“工曹啓,凡進上器皿,不用心堅緻造作,緣比不久破毀,今後於器皿底,書造作匠名,以憑後考,基不用心者,徵基器皿,從之”

29) 동서문화사, 2002,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조선시대 중앙의 각 궁(宮)·사(司)가 지방의 여러 관부에 부과하여 수납 할 연간 공부(貢賦)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책. 태조 즉위 직후에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이 설치되어 공안이 마련되었으나 각 궁·사의 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폐해로 인해 1464년(세조 10)에 공안을 전면 개정하여 횡간(橫看)으로 바뀌게 되었다.

30)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西部洞 19番地 遺蹟』, p.24, (表11, 12).

<표-2> 수혈13호, 21호 출토 관사명분청사기 대접·접시 문양과 명문의 속성 비교표

속 성			13호	21호	
문 양	신부	1	집단연권문	54점(84.40%)	3점(15.80%)
		2	파선문	4점(6.25%)	12점(63.15%)
		3	집단연권문+파선문		4점(21.05%)
		4	국화문	6점(9.35%)	
		소 계		64점	19점
	구연부	a	초문	33점(55.00%)	2점(9.52%)
		b	늪문	2점(3.33%)	
		c	초문+늪문	6점(10.00%)	
		d	초문+중권문	13점(21.67%)	4점(19.05%)
		e	늪문+중권문	3점(5.00%)	
		f	중권문	3점(5.00%)	15점(71.43%)
		소 계		60점	21점
	명 문	慶州府長興庫		13점(40.62%)	1점(20.00%)
慶州長興庫		11점(34.38%)	2점(40.00%)		
慶州		1점(3.12%)	1점(20.00%)		
府		1점(3.12%)			
官(?)			1점(20.00%)		
慶州公須		5점(15.64%)			
公須		1점(3.12%)			
소 계		32점	5점		

관사명 분청사기 중에서 다 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慶州長興庫」, 「慶州府長興庫」, 「慶州公須」 銘 등이며, 수혈 13호와 수혈 21호의 출토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두 수혈의 출토품에서 「慶州府長興庫」가 공통적으로 출토된 사실은 양자간에 큰 시기적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므로 13호와 21호 수혈에서 출토된 분청사기의 기종을 대접과 접시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慶州公須」, 「公須」 명 분청사기는 13호 수혈에서만 확인되며, 13호와 21호 수혈에서 출토된 분청사기의 문양의 종류, 시문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다 수의 분청사기가 출토된 수혈 13호와 21호의 출토유물의 속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2>에 의하면 신부에는 ① 집단연권문, ② 파선문, ③ 집단연권문+파선문, ④ 국화문이 시문되었다. 수혈 13호에서는 총 64점 중 54점이 ① 집단연권문으로 약 84%를 차지하고, 수혈 21호에서는 총 19점 중 ② 파선문이 12점으로

서부동 19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는 총 278점이다. 이를 구분하면 시골조사 24점(8.63%), 옥지 4점(1.44%), 수혈13호 70점(25.18%), 수혈21호 45점(16.19%), 기타수혈 15점(5.40%), 우물 11점(3.96%), 표토수습 109점(39.20%)으로 구분된다.

63%를 점한다. 이로 보아 수혈 13호와 21호 간의 차이점이 파악된다.

구연부에 시문된 문양은 ㉠초문, ㉡늪문, ㉢초문+늪문, ㉣초문+중권문, ㉤늪문+중권문, ㉥중권문 등이 시문되었는데 수혈 13호는 총 60점 중 ㉠는 33점(55%), ㉡는 2점(3.33%), ㉢는 6점(1%), ㉣는 13점(21.67%), ㉤와 ㉥는 각각 3점(5%)으로 구연부에 시문되는 문양으로는 ㉠인 초문과 ㉣인 초문+중권문의 비율이 높다. 수혈 21호는 구연부의 문양이 확인되는 총 21점 중 ㉠가 2점(9.52%), ㉣가 4점(19.05%), ㉥가 15점(71.43%)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연부에 시문된 문양으로 ㉥인 중권문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수혈 내부에서 시문된 문양의 종류와 방법에 있어서 선후의 기준이 되는 속성들이 확인된다. 신부문양에 있어 수혈 13호 출토품에서는 국화문의 소멸과 집단연권문의 성행, 21호 수혈 출토품에서는 집단연권문에서 파선문으로 이행하는 변화가 관찰된다. 구연부의 문양에 있어서 수혈 13호 출토품은 늪문의 소멸과 초문의 성행이, 수혈 21호 출토품에서는 초문의 소멸과 중권문의 성행을 파악할 수 있다.

수혈 13호에서는 단치구로 문양을 시문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으나 수혈 21호에서는 단치구로 신부문양을 시문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수혈 13호가 수혈 21호보다는 시기가 조금 이른 유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두 수혈에서 신부 문양과 구연부 문양의 변화양상이 확인되는데 신부 문양은 단치구로 성기계 시문된 국화문→문양대를 가득 채워 시문한 집단연권문→파선문 순으로 변화하고, 구연부의 문양은 늪문, 초문→초문(늪문)+중권문→중권문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수혈에서 확인되는 문양의 변화와 시문기법의 변화는 인화분청사기에 시기적인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표-2>에 나타난 인화분청사기의 다양한 문양은 시기에 따른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즉 단치구로 문양을 성기계 시문한 것에서 다치구로 기면을 빈틈없이 가득 채워 시문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단연권문과 같이 다치구로 시문된 문양과 함께 다양한 보조문양의 등장, 관사명과 함께 지방명이 나타나는 시기로 강경숙이 제시한 분청사기편년안의 중기(약 1420년경-약 1480년경)에 해당한다.³¹⁾

31) 姜敬淑, 1986, 『粉靑沙器研究』, 一志社, p.375, <表7>.

강경숙, 2004, 『분청사기의 특징과 변천』, 『湖林博物館所藏粉靑沙器名品展』, 湖林博物館, pp.281~286.

최근 강경숙은 분청사기 편년안을 일부 수정하여 5단계로 구분하였다.

대동기(1365년~1400년), 발생기(1400년~1432년), 발전기(1432년~1469년), 변화기(1469~1510년경), 쇠퇴기(1510년경~1550년경). 이에 따르면 수혈13호와 21호는 발생기에서

경주부 관련 기사 중 <표-1>의 6(1442), 7(1443), 8(1447), 9(1462), 10(1469)의 제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집경전에서 행해지는 길례의 체제가 점차 완비되어 감을 알 수 있으며, 집경전의 변화와 관련된 시기가 분청사기 편년구분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朝鮮王朝實錄』에서 나타난 경주부 집경전의 제의 관련기사는 서부동 19번지 출토유물의 성격과 시기구분에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이다.

제기와 관련되는 이 시기의 기사로는 1430년 예조에서 각 고을에 봉상시의 여러 가지의 제기를 각도로 나누어 보내어 이를 본떠 주조해 만들도록 하고 또 제기를 간직해두는 창고를 만들어 단지기로 하여금 간수하게 하자는 내용과 제기의 제작은 우선 자기로 구워 만들도록 하라는 아래의 기사가 있다.

<사료3> 『世宗實錄』卷49, 12年 8月 6日條(1430年)

각 고을에서 변·두·보·쾌·등·형·준·뇌·조·점·작·비 등 제기의 제도를 알지 못하여 제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봉상시의 각색 제기를 각도로 나누어 보내어 이를 본떠 주조해 만들도록 하고, 또 제기를 간직해 두는 창고를 만들어 단지기로 하여금 간수하게 하자는 윗 조항은 아된 대로 시행하게 하되, 제기의 주조는 우선 자기로 구워서 만들도록 하소서(“……”各官 未知 鑄·豆·簠·簋 登 銅尊 罍 俎 帖 爵 篚 等 祭器之制 妄意造作 未得精潔 宜以奉上寺諸色祭器 霽送各道 見樣鑄成 又造藏祭器庫 令壇直看守 右條依所申旅行 基鑄器姑以磁器鑄造 從之”)

위의 기사 내용으로 볼 때 1430년을 전후하여 각 지방에서는 필요한 제기들을 현지에서 제작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1447년 集慶殿의 제탁에 올릴 제품의 위치를 정했다는 기사로 볼 때, 이 시기에는 다수의 관사명분청사기와 제기들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³²⁾ 제사의 주체는 왕실에서부터 지방의 郡縣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적인 기관이 포함된다. 그리고 제사의 주체와 중요도에 따라 사용되는 길례용 제기는 종류와 수량에 차이가 있으며 총 수량이 10개에서 80여개로 다양하다.³³⁾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들의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朝鮮王朝實錄』³⁴⁾, 『慶州先生案』(府先生晏 1195~1903)³⁵⁾, 『東京通誌』³⁶⁾ 등에 기

발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며 문양의 변화양상을 통해 이를 추정할 수 있다.

32) 『世宗實錄』 『五禮儀』 宗廟祫亨 五室饌實圖 참조

33) 정소라, 1999, 『朝鮮前期 吉禮用 紛靑祭器 研究』, 『미술사연구』 223, 한국미술사학회, p8.

록된 경주부 관련 기사를 비교하여 살펴 본 결과 <표-3>과 같다.

경주 집경전의 시기에 따른 서부동 19번지 출토유물의 변화는 강경숙의 분청사기편년안과 문헌기록에 나타난 연대를 기준할 때 모두 3기로 구분되지만 제 1기와 제 2기의 유물만 확인되었다. 그리고 서부동 19번지 유적의 제 3기(분청사기 편년안의 후기 제1기: 약 1480년경-약 1550년경)에 해당되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제1기와 제2기의 구분은 유구내부에서 「司膳」銘, 흑백상감분청사기가 확인되지 않고 지표 또는 시굴조사 유물에서만 확인되는 점, 1413년에 계림부에서 경주부로 개칭된 이후 수혈 유구 또는 우물내부에서는 지명인 慶州가 시문된 분청사기가 모두 확인되는 점 그리고 공납자기의 제품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³⁷⁾으로 보아 1420년을 기준으로하여 구분하였다. 제 2기와 제 3기의 구분기준은 분원의 설치(1469)로 인하여 지방의 분청사기는 공납의 의무가 사라지는 시기이다³⁸⁾. 서부동 19번지 각 수혈유구의 폐기 연대는 예종 원년(1469) 6월에 공조 판서 梁誠之가 貢物分定에 관한 상소문의 내용에 도자기가 공물에 포함되지 않은 점³⁹⁾과 후기 제1기(약 1480년경-약 1550년경)에 해당하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1469년 이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부동 19번지 유적 출토 관사명분청사기의 하한연대는 1469년 이후로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4) 慶州大學校 慶州文化研究所, 1999, 『朝鮮王朝實錄 慶州關聯記事資料集』

35) 趙喆濟 譯註, 2002, 『國譯 慶州先生案』, 慶州市·慶州文化院

36) 慶州文化院, 1989, 『國譯 東京通誌』

37) 각주 33), 34)참조.

38) 강경숙, 2004, 「분청사기의 특징과 변형」, 『湖林博物館所藏靑沙器名品展』, 湖林博物館, p.284.

39) 『睿宗實錄』卷6 睿宗 元年 6月 辛巳條

“工曹判書梁誠之上書曰…一定公賦臣竊惟貢物詳定自古以爲難山海所產各異而未 能均一分定然不可汎然爲之須因水陸而詳定之… .

<표.3> 경주 집경전의 변화를 통해본 서부동 19번지 출토유물 시기구분

시기	연대	주요사건	출토유물	특징
第1期	1398 - 1420	-임금의 진영을 어용전에 봉안(1398) -태조 진전의 설치 및 四孟朔 大享과 有名日 別祭의 설치(1414) -四時大享의 폐지(1415) -관사명의 기입(1417)	-司膳 -흑백상감 분청사기	-인화문 발생 -흑백상감의 이중연 판문, 魚文과 연당초 문, 초문, 증권문이 시문됨
第2期	1420 - 1469	-장인명의 기입(1421) -지방에서 자기로 제기를 제작하도록 함 (1430) -太祖眞容을 集慶殿으로 개칭하고, 殿直 2人 을 둠(1442) -역원에 집기와 기명을 제작함(1442) -太祖眞容을 集慶殿에 봉안함(1443) -集慶殿의 제탁에 올릴 제품의 위치를 정함 (1447) -集慶殿의 祭司의 종 8人을 양민 20人으로 정하여 수직케 함(1462) -集慶殿에 누각이 없어서 제향을 지내는 시 각을 알지 못하자, 漏刻과 日影을 내려 보내 사용하게 함(1469)	-관사명자 기(慶州府 長興庫, 公須) -인화분청 사기 -제기(인화 분청사기 매병, 인 화박지분 청사기접 시)	-인화문의 발전 -구연부: 초문, 너문, 증권문 등의 상감기 법 -주문양: 집단연권문, 파선문, 국화문, 와선문 -보조문양: 나비문, 원문, 여의두문, 국화문 등 -관사명자기 생산
第3期	1469 - 1494	-集慶殿 典祀廳에 불이 나 祭器와 祭服이 모 두 불에 타자, 時服과 沙器로 제사를 지내게 함 (1494)	-추정 분청사기 (백자?)	-관련유물 미확인

Ⅲ. 공납자기의 제작과 공급형태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관사명 자기를 살펴본 결과 관사명의 시문방법 및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여러 가마에서 생산된 제품이 경주부로 공급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사명분청사기가 확인된 경주지역의 분청사기 가마는 龍明里 粉靑沙器 窯址, 暗谷洞 粉靑沙器 窯址, 南沙里 粉靑沙器 窯址, 內台里 粉靑沙器 窯址와 高旨坪 粉靑沙器 窯址등이 있으며 이 곳에서 공납자기가 생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부동 19번지에서 출토된 다양한 관사명분청사기들은 경주부의 객사 및 집경전에 공납되어 사용되었던 분청사기이다. 현물로 세금을 대납하는 공납자기는 지방의 생산지에서 왕실이나 중앙관청으로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경주 서부동에서 확인된 「公須」銘으로 인해 지방관청에

서 필요로 하는 공납자기는 지방재정으로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출토유물을 통해 입증되었다⁴⁰⁾.

공급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주부내에서 생산된 관사명분청사기가 타 지역의 관청으로 공급된 예는 金山(金泉)官衙址⁴¹⁾, 興海(浦項) 泉谷寺⁴²⁾, 東萊(釜山) 邑城⁴³⁾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彦陽에 소재한 하잡리 분청사기 요지에서 생산된 「彦仁」 銘 접시, 密陽에서 만들어진 「密陽長興庫」 銘 분청사기의 존재는 당시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던 경주부에 이들 자기가 공납되었음을 보여준다.

경주부의 예와 같이 금산군 관아와 객사유적에서 출토되는 관사명 분청사기는 금산군 관내의 분청사기요지에서 생산되어 공납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충청북도 영동군 사부리 1호·2호 분청사기 요지에서 「金山仁壽府」, 「金山長興庫」, 「金山長興庫納」, 「金山仁壽府納」, 「金」 銘 등의 관사명 분청사기가 출토되었고⁴⁴⁾, 영동군 사부리 황보 1호 분청사기 요지에서는 「德寧」 銘 관사명 자기가 수습되었다⁴⁵⁾. 이 중 「金山長興庫」 銘 관사명 자기는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金山(金泉)官衙址⁴⁶⁾에서 출토되었다. 따라서 사부리 분청사기 요지에서 생산된 공납분청사기가 금산군으로 공급되었다는 사실은 경주부에서 「密陽長興庫」, 「彦仁(彦陽仁壽府)」 銘 분청사기가 출토된 것과 동일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密陽長興庫」 銘 분청사기가 蔚山 開雲浦城址에서 출토⁴⁷⁾된 것도 경주부와 금산군의 경우와 비슷한 예로 볼 수 있다.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동 유적은 상주읍성지의 동문에서 북동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司膳」, 「官」 銘 및 다양한 인화분청사기가 출토되었다⁴⁸⁾. 복룡동 유적에서 확인된 관사명분청사기들은 관청과 관련된 건물지에서 사용되었거나 출토된 관사명분청사기들로 상주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거나 분청사기요지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더 이상의 연구는 어려운 형편이다.

40) 심지연, 2003, 『慶州 西部洞 出土 官司銘 粉靑沙器 研究』,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96~97.

41) 계명대학교 박물관, 1998, 『김산군의 관아와 객사유적 발굴유물 특별전』

4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자료.

43) 부산박물관, 『부산 박물관 소식』, 2002 겨울/ 2003 봄 호.

44) 中央文化財研究院, 2003, 『高速國道 第1號線 永同-金泉間 擴張工事 永同 沙夫里·老斤里 陶窯址』

45) 忠北大學校博物館, 1993, 『忠北地方 陶窯址 地表調査 報告書』

46) 계명대학교 박물관, 1998, 『김산군의 관아와 객사유적 발굴유물 특별전』

47) 嶺南考古學會, 2002, 『蔚山 開雲浦城址 發掘調査(1次)』, 『嶺南考古學』 30號 p.127.

48) 嶺南文化財研究院, 2004, 『尙州 伏龍洞遺蹟 發掘調査』, 현장설명회자료34.

박달석 백미옥, 2004, 『尙州 伏龍洞遺蹟 發掘調査』, 『통일신라시대의 고고학』, 韓國考古學會, pp.369~392.

그러나 북룡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관사명분청사기의 공급형태는 경주부나 금산군과 동일한 사례일 것으로 생각된다.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분청사기요지에서 「官」, 「衙」 銘이 시문된 분청사기가 수집된 것⁴⁹⁾으로 보아 밀양지역의 관청에 공급된 공납자기로 추정되며 위와 같은 사례로 보여진다.

경주 서부동 유적에서 출토된 「慶州長興庫」 銘 분청사기를 통해 慶州府의 域內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공납자기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 지역 공납자기의 출토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제작비용의 차이와 공급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납자기인 관사명분청사기의 공급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생산지에서 왕실이나 중앙관청으로 공급되는 것(중앙 재정=국세), 둘째, 생산지에서 지방관청이나 역, 원 등에 공급하는 것(중앙재정, 지방재정(公須, 水, 營 등)=지방세)이다. 이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 <표-4>와 <표-5>이다.

<표-4>공납자기 공급과정(중앙)

생산지	⇒	각 지역 관내 공납자기 집하지	⇒	한성부(왕실, 중앙관청)
-----	---	------------------	---	---------------

<표-5>공납자기 공급과정(지방)

생산지	⇒	공납자기 집하지 (경주부)	→	1	경주부 내 관청으로 공급됨. (일부 관사명은 지방경비로 제작)
			→	2	타 지역관청으로 공급됨.
			←	3	관내의 지명으로 제작된 타 지역 생산품이 유입됨.(주문자 제작)
			←	4	타 지역 생산품이 유입됨.

<표-5>의 사례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왕실이나 중앙관청으로 공급되는 형태는 <표-6>의 2에 해당한다.

49) 개인소장품

<표-8> 공납자기의 공급형태

번호	경주부와 경상도지역의 사례	다른지역의 사례
1	①군수방골분청사기 요지-「司(司膳의 약자)」, ②용명리분청사기 요지1-「慶州府長興庫」, ③남사리분청사기 요지-「興庫」, 「慶·庫」, 「·興庫」, 「公(?)」, ④내테리 분청사기 요지-「慶州長興(내저면, 공(급저면 음각)」, 「慶州」 ⑤고지평 분청사기 요지 ⁵⁰ -「慶州府長興庫」	①영동군 사부리 분청사기 요지→ 금산군 관아와 객사 ⁵¹⁾ ②김해시 대감리 ⁵²⁾ 분청사기 요지 →김해읍성 ⁵³⁾ , 김해 구산동 ⁵⁴⁾ ③양산시 원동면 화계리·동면 가포리 분청사기 요지 ⁵⁵⁾ →양산 하북정 유적 ⁵⁶⁾ (추정)
2	「慶州(府)長興庫」 ⇒금산군(김천)관아와 객사지 ⁵⁷⁾ , 홍해(포항) 천곡사 ⁵⁸⁾ , 포항 지곡동 ⁵⁹⁾ , 동래(부산)읍성 ⁶⁰⁾ , 서울 ⁶¹⁾ , 경북 봉화읍 삼계리 ⁶²⁾	①경북궁 ⁶³⁾ -「義興仁壽」銘(경북 군위군 의흥지역) -「三加」銘(경남 陝川 三嘉지역) -「內瞻」銘(충청, 전라도 지역) ②경북궁 局軍營直所址 ⁶⁴⁾ -「長」, 「內瞻」 -「咸陽」銘(경남 함양지역 ⁶⁵⁾) ③경희궁 ⁶⁶⁾ -「禮賓」, 「內瞻」, 「仁壽府」, 「義興仁壽」銘
3	언양 태기리분청사기 요지-「慶州長興」	언양 태기리 분청사기 요지 -「司膳」, 「彥陽仁壽」銘
4	①서부동 19번지유적-「彥仁」, 「密陽長興庫」 ②蔚山 開雲浦城址 ⁶⁷⁾ -「密陽長興庫」	울산 하잠리 분청사기 요지 ⁶⁸⁾ -「彥仁」 ⁶⁹⁾ 銘

50) 1954년 9월 4일 5968758889

50)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4, 『울산고지평유적』(Ⅲ)
 51) 中央文化財研究院, 2003, 『高速國道 第1號線 永同-金泉間 擴張工事 永同 沙夫里·老斤里 陶窯址』
 심지연, 2003, 『慶州 西部洞 出土 官司銘 粉靑沙器 研究』,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3-94.
 52) 국립중앙박물관, 2004, 『2003 國立博物館年報』, pp.138-139.
 2003년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에서 실시한 도요지지표조사 결과 김해시 대감리 1호 가마터에서 『金海』, 『長』銘이 발견되었다.
 53)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9, 『김해 동상동 소방도로 개설 구간내 김해읍성지 시굴조사』, 『博物館研究論集』 7.
 54) 東亞大學校博物館, 1999, 『金海龜山洞遺蹟』, pp.132~134.
 조선시대 건물지에서 『金』, 『公』銘이 시문된 분청사기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55) 통도사성보박물관, 2002, 『梁山의 歷史와 文化』, pp.200-203.
 56) 東亞大學校博物館, 1992, 『梁山 下北停遺蹟』
 57) 계명대학교 박물관, 1998, 『김산군의 관아와 객사유적 발굴유물 특별전』
 5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소장품
 59) 경주대학교박물관, 2003, 『浦項 芝谷洞遺蹟』, p.165.
 60) 부산박물관, 『부산 박물관 소식』, 2002 겨울/ 2003 봄 호.
 61)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粉靑沙器』, p.11, No.1, 1954년 이화여자대학교 가정학과 생활관 신축공사시 발견.

화살표는 생산지가 확인된 관사명분청사기의 생산지에서 최종 소비지로의 이동경로를 나타내며 두 지역으로 구분된다. 경주부와 진주로 구분되어 각각 한성부(서울)의 왕실이나 중앙관청으로의 이동 경로가 확인되며 지역군의 차이로 인하여 관사명분청사기의 공급관청이 각기 달랐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관물인 공납자기가 관(府, 郡, 縣)에서 관(驛, 院, 營, 津)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事例: 경주부→금산관아지, 경주부→동래읍성)

관사명분청사기의 공급형태 중 <표-4>와<표-5>의 공급형태가 1차적인 공납과정이라면 공납자기의 2차적인 이동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寺刹로 보내진 자기와 개인사장사례를 들 수 있다.

먼저, 왕실의 원찰인 楊州 會巖寺址⁷⁰⁾에서는 왕실소용으로 공납되는 『寧, 銘 분청인화국화문화형접시가 출토되었다. 문양상의 특징은 흑상감으로 구획선을 시문하고 성긴 꽃도장으로 시문한 점 등으로 보아 15세기 전반부에 해당하는 仁寧府(존속기간 1400년~1421년)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木川徐萬, 『木徐萬, 銘 분청사기 향완이 출토되었는데 木川(淸州) 磁器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圓覺寺址⁷¹⁾에서는 陝川 三加에서 생산된 『三加, 銘 분청사기가 출토되었다.

양주 회암사지와 원각사지에서 출토된 『三加, 銘 분청사기는 지방에서 생산되어 왕실로 공납받은 분청사기를 다시 왕실에서 사찰로 보낸 예로 생각되어지며 지방 생산지에서 한성부(왕실)로 공납된 후 왕실의 원찰 등으로 이동되는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반대의 경우인 개인이 관물을 사장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관사명기입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개인의 관물사장사례는 계속되었다고 보여지며 조선시대 분묘에서 관사명자기들이 출토되고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출토 사례는 대구 옥수동 유적 385호 묘에서 『仁壽府, 銘 분청사기 대접 1점⁷²⁾, 경주 동천동 유적의 154호 묘에서 『長, 銘 분청사기접시 1점⁷³⁾, 昌寧 桂城古墳群 I 지구 64호 묘에서 『長興庫, 銘 분청사기 대접 1점⁷⁴⁾, 대구 연호동고분군⁷⁵⁾ 28호 묘에서 출토된 청동제 순가락 술대에 새겨진 『公須, 銘이 있다.

70) 경기도박물관, 2003, 『물허있던 조선 최대의 왕실사찰 檜岳寺』

71) 서울역사박물관, 2002, 『원각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72) 嶺南文化財研究院, 2001, 『大邱 旭水洞·慶山 玉山洞遺蹟 發掘調査』

73) 大邱大學校 博物館, 2002, 『慶州 東川洞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pp.151~152.

74) 慶南考古學研究所, 2001, 『昌寧桂城新羅高塚群』, pp.226~227.

75)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大邱 蓮湖洞 古墳群』, pp.64~65.

공납자기인 관사명분청사기는 그 공급형태에 있어 각 지방에서 중앙으로 공급되는 형태와 지방생산지에서 지방관청으로 공급되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그 중 후자에 해당되는 관사명은 알려진 자료가 많지 않으나 「公須」銘의 예와 같이 「營」, 「水營」, 「官」, 「衙」銘 등도 지방관청의 필요에 의해 지방의 재정으로 제작된 공납자기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別」, 「上」銘 등 성격이 밝혀지지 않은 여러 명문들이 서부동 19번지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주지역에서는 건물지 또는 사찰, 분묘 등 다양한 유적에서 관사명분청사기들이 확인되고 있다(지도3). 출토 사례들을 유적별로 살펴보면, 먼저 건물지에서 확인된 것으로 신라왕경유적(慶州長興庫, 內瞻, 仁壽○用)⁷⁶⁾, 북문로 왕경유적(慶州, 慶州長興庫)⁷⁷⁾, 동천동 789-10번지유적(長)⁷⁸⁾ 등이 있다. 경주내의 사찰 및 폐사지에서 관사명분청사기가 확인된 예는 분황사(慶州), 석장사지(慶州府長興庫)⁷⁹⁾, 굴불사지(慶州長興庫)⁸⁰⁾, 인용사지(慶州(府)長興庫), 삼랑사지(慶州長興庫)⁸¹⁾, 불국사(佛國寺)⁸²⁾ 등이 있다.

특히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인용사지의 경우 경주 서부동 19번지의 제 2기와 제 3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관사명분청사기와 제기편들이 출토되었다.⁸³⁾ 인용사지의 부근에 경주향교와 사마소가 위치하고 있어 이 두 곳에서 사용되었던 관사명분청사기가 사용 후 폐기되었던 장소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용사지의 경우 관사명분청사기가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되는 것이 아니라 지표수집품으로 서부동 19번지 유적과 차이가 있다. 분청사기로 제작된 제기 이외에도 백자로 제작된 제기편들이 확인되며 이 유물들이 향교나 사마소로 공급되었던 공납자기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유추해 보면 인용사지 주변지역이 서부동 19번지 수혈유구의 성격과 같은 폐기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76)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新羅王京』

77) 韓國文化財保護財團·慶州市, 2003,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

7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8, 『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緊急發掘調查報告書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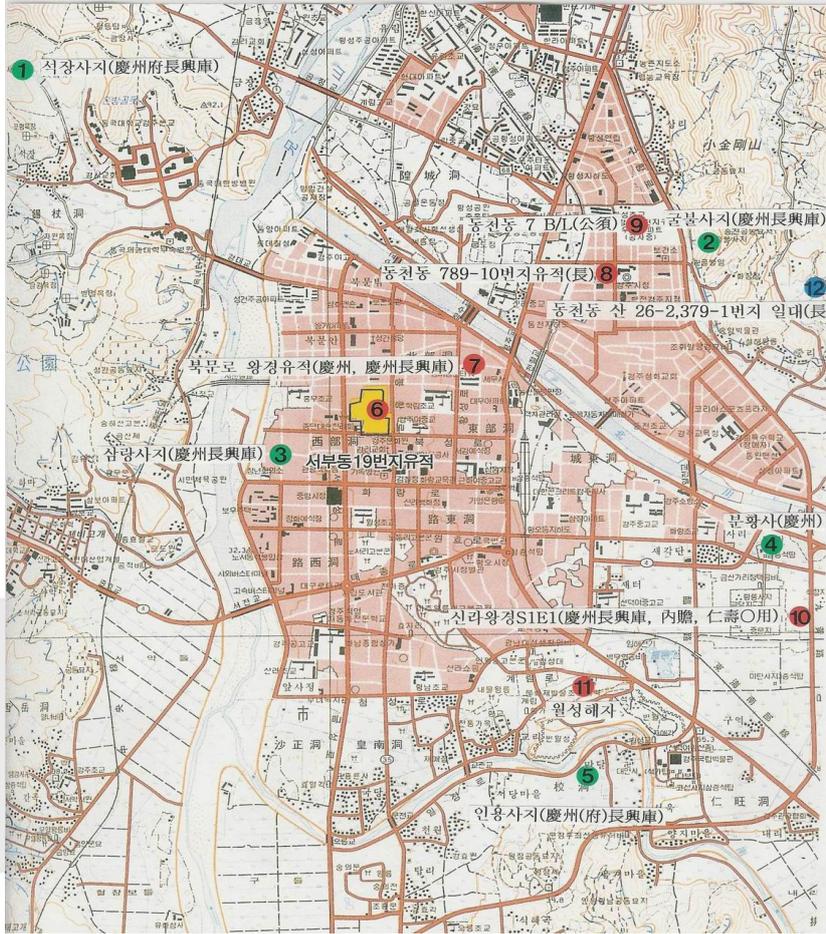
79)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1994, 『錫杖寺址』

80) 慶州古蹟發掘調查團, 1986, 『掘佛寺遺蹟發掘調查報告書』

81) 東國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2000, 『三郎寺3길遺蹟』, 현장설명회자료1.

82) 경주대학교박물관, 2004, 『경주 불국사 성보박물관 건립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3차 지도위원회 자료』

8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 『傳 인용사지 지도위원회의』



지도3. 경주시내 관사명분청사기 출토현황도

IV. 맺음말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관사명분청사기의 분석결과 조선전기 경주부에 사용되었던 공납자기의 시기적인 변화양상과 공급형태를 구분할 수 있었고 확인되지 않았던 관사명인 「公須」 銘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정치·경제체제의 기반은 중앙집권적인 지방통치에 의한 對民收取에 있었고 일반 백성으로부터 貢稅와 賦役을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경제적 기초로 삼았다. 조선시대의 재정은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아

중앙의 경우 호조와 그 소속아문에서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관서에서도 관여하였고 지방에서는 監營, 兵營·水營과 郡縣, 驛·院·津(渡) 등에서도 각기 재정에 관여하고 있었다.⁸⁴⁾ 조선시대의 공납자기(관사명분청사기)는 당시 조세제도 아래에서 현물로 수납된 여러 물품중의 하나이며 『經國大典』의 戶典이 완성(1460년)되고 현물공납이 폐지(1469년 梁誠之의 貢物分定 상소문)되기까지 공납자기는 조선전기의 사회 경제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부동에서 출토된 관사명분청사기의 시기구분은 강경숙의 분청사기편년안과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경주부내 집경전의 변화와 관련된 기사를 검토하여 제 1기(1398년-1420년), 제 2기(1420년-1469년), 제 3기(1469년-1494년)로 구분하였다. 서부동 19번지 출토유물의 중심연대는 제 2기로 대부분의 유물에 여기에 해당하며 제 2기의 선후가 되는 기준은 「公須」銘의 유무로 구분하였다.

공납자기인 「公須」銘 인화분청사기에 대한 자료는 현재 경주지역(서부동 19번지, 동천동 7B/L)에서만 확인되며 경주이외의 지역에서도 출토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 분묘에 부장된 유물 중 청동제 손가락의 손잡이 뒷면에 「公須」銘을 시문한 예도 확인되어 「公須」銘이 역에서 필요로 했던 여러 관물에 그 이름을 새겼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관사명 중 「公」, 「守(?)」, 「銘」 등의 관사명이 서부동 및 여러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公須」銘의 약자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公須」銘 인화분청사기의 연대는 역에서 외국사신을 접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사의 수리, 집물, 기명의 제작에 있어 공수전의 소출로 부담한다는 기사로 보아 그 상한을 1425년으로 보았다. 그리고 「公須」銘 이외에도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지방관청에서 제작된 새로운 관사명 자기가 출토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營」, 「官」銘 이외에 생산지에서 확인된 하잠리 분청사기요지의 「水營」과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분청사기요지의 「官」, 「衙」銘도 지방관청의 필요에 의해 제작된 공납자기로 추정된다.

위의 사실로 보아 공납자기인 관사명분청사기의 제작 및 공급과정은 각 관청의 회계장부(重記)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비 이후의 폐기과정도 각 관청에서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납자기의 공급형태에 대해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구분한 결과 전국적으로 동일한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주지역의 관사명분청사기에 대한

84) 李載鰲, 1994, 「IV. 국가재정」,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p.423.

구체적인 시기구분이 이루어진다면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사명분청사기의 지역적 특징을 밝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작지가 새겨진 관사명 자기의 존재는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인 동시에 당시 궁궐·조정·지방관부·병영·진·역원·향교·서원 등과 같은 당시 주요 소비처에 대한 공납자기의 수급관계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공납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당시 수공업 생산품의 유통과정에 대한 연구자료 외에 당시의 사회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실물자료이므로 앞으로 관사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